

眞正한 丁茶山 研究의 길 (三)

(아울러 茶山論에 나타난 俗學的 見解를 批判함)

天台山人

三, 漢詩에 發露된 人道主義의 傾向

丁茶山을 에워싼 當時의 社會經濟的 背景을 잘 알지 못하고는 그 漢詩의 時代을 充分히 알 수가 없다. 當時 朝鮮社會는 兩班(地方政治에 干與하는 土班까지 合), 中人, 賤民, 奴隸의 四중으로 난호어 잇고 兩班은 다른 세 種의 生産群에 寄生하고 잇섰다. 李朝의 土地制度에 잇서서 그 口分田制는 特權群에게는 功田, 職田, 宮房田 等を 주고 生産者인 人民에게는 口分田을 주고, 이 土地는 賣買의 對象이 되지 안는 것이었스니 李朝末年에 이르러서 國家權力의 廢頽와 함께 特權者의 土地兼併과 그 □□의 ××가 시작되는 동시에 地方官과 吏胥의 苛斂誅求가 열리며, 이 背後에는 中央政局의 大監, 令監들이 이것을 操縱만 하고 잇든 것이니, 죽을 것은 百姓이요 民間의 疾苦라든가 그로 因한 國家의 前途라든가는 그들의 眼中에 업섰다. 그리하여 國民이 떼를 지어 道路에 彷徨하며 或은 京師로 몰려오는 者 한번에 數千名式에 달하얏다. 茶山이 暗行御史로 가다가 □□村舍에서 지은 詩

「……銅匙舊遭里正攘, 鐵鍋新被鄰豪奪, 青綿敝衾只一領, 夫婦有別論非達, 兒穉穿襦露肩肘, 生來不著袴與襪, 大兒五歲騎兵簽, 小兒三歲軍官括……晝闕再食夜還炊, 夏每一裘冬必葛, 野薺苗沈待地融, 村籩糟出須酒醞, 餉米前春食五斗, 此事今年定未活, 只怕邏卒到門扉, 不愁縣閣受笞撻, 嗚呼此屋滿天地, 九重如海那盡察……」(大東詩選卷九)

里正과 隣家の □□, 小兒의 軍布 强徵, 還上米의 强斂의 實際 場面の 描寫다. 龍山吏 一首는 杜甫의 石塚吏에 次한 者로

「吏打龍山村 搜牛付官人 驅牛遠遠去 家家倚門看 勉塞官長怒 誰知細民苦 六月索稻米 毒痛甚征戍 德音竟不至 萬命相枕死 窮生儘可哀 死者寧哿矣 婦寡無良人 翁老無兒孫 泫然望牛泣 淚落沾衣襟 村色劇疲衰 吏坐胡不歸 瓶甕久已罄 何能有夕炊 坐令生理絕 四隣同嗚咽 脯牛歸朱門 才謂以甄別」

이것은 純祖十年 龍山村에 一點血肉도 업시 財産이라고는 소 한 마리밧게 업는 것을 吏胥가 와서 빼서다가 朱門이 □로 提供하는 實話다. 四隣이 소를 빼앗기고 嗚咽하는 판이다. 그 飢民詩에는

「……喁喁就湯糜，狗彘棄不顧，乃人甘如飴」

「……羨彼野田雀，啄蟲坐枯枝，朱門多酒肉，絲管邀名姬……」

라 하야 쓰레기통에 두는 것도 맛있게 먹는 飢民이 있는데 朱門에는 酒□肉에다가 名妓를 불러다 노코 따려라 먹어라 하니 얼마나 矛盾이 아니냐 한 것이다. 그리하야 (南瓜炭)에

「聞說罌空已數日，南瓜鬻取充哺嚙，早瓜摘盡當奈何，晚花未落子未結」

이는 보리고개를 두고 읊은 怨歌

「麥嶺崎嶇似太行……」

와 또는 拔苗，□□，□□，浪詩，有見，諸詩와 竝讀할 적에 가장 民□를 간즈럽게 알려주는 것 같다.

純祖 九年 己巳에 지은 采蒿詩와 其他 「豺狼」詩 一首를 곁트로 들자.

采蒿詩 -- 己巳歲大旱大旱，爰自冬春，至于立秋，赤地千里，野無青草，六月之初，流民塞路，傷心慘目……婦人采蒿爲鬻以當食焉

采蒿采蒿，或得其蕭，或得其蘆，或得其蒿，方潰由胡，馬新之苗，曾是不擇，曾是不饒，拏之捋之，于筭于筭，歸焉鬻之，爲餐爲饕，兄弟相攫，滿室其囂，胥怨胥詈，如鴟如梟.

이는 凶年에 流民이 쑥을 캐서 그도 不足되여 家族들이 빼서가면 사먹든 니약이다

豺狼詩 - 哀民散也，南有二村，曰龍曰鳳，龍有某甲，鳳有某乙，偶戲相毆，乙者病斃，二村之民，畏於官檢，令甲自裁，甲欣然自死，以安村里，旣數月，吏知之，聲罪二村，徵錢至三萬，寸布粒粟，靡有遺者，其毒急於凶年，吏歸之日，二村則流.

有一婦訴于縣令. 令曰爾出而索之，豺兮虎兮，不可以語，禽兮獸兮，不可以詬，亦有父母，不可以恃……流兮轉兮，填于坑坎，父兮母兮，梁肉是啖，房有妓女，顏如菡萏.

이는 吏胥의 가장 殘忍한 誅求의 場面이다. 甲乙兩村에 殺人事件이 나서 村民이 隱密히 解決하여 埋沒해버린 問題를 口實로 吏胥가 三萬□을 強奪하야 村民이 다 流浪하여 버리고 한 村婦가 縣令에게 呈訴하니 그 亦不得要領으로 村婦더러 네가 나가서 차지라는 것이다. 이를 「殺獄一申에 □村遂殘이라. 故로 其□之者 十에 八九라.」(經世遺表田制條)라는 語와 對照하여 보면 알 것이다.